

# 애경유화, 단열재 난연성 크게 개선

스티로폼·PU보다 단열성 70% 향상 ... 두께도 대폭 줄여 경쟁력 제고

애경유화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단열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해 주목된다.

애경유화는 불에 잘 타지 않으면서도 단열효과가 좋은 건축자재인 <AK PIR>를 출시했다.

<AK PIR> 유기물 자재로 단열재나 샌드위치패널에 많이 쓰이는 스티로폼, 폴리우레탄(Polyurethane), 유리섬유보다 단열성능이 최고 70%까지 좋으면서도 난연성이 뛰어나고 두께가 얇은 것이 특징이다.

애경유화는 자체실험 결과 동일한 조건에서 불에 태웠을 때 구멍이 뚫리는 시간이 스티로폼은 15초, 폴리우레탄 90초, 유리섬유가 180초였지만 AK PIR는 불에 타거나 녹지 않고 그을음이 생기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.

또 같은 단열효과를 내려면 스티로폼과 유리섬유는 AK PIR보다 각각 30%, 70% 두꺼워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
애경유화 관계자는 “2월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관한 고시에 적합하려면 건축물 벽의 두께가 현재보다 30% 이상 두꺼워져야 하기 때문에 기존 제품으로는 비용이나 시공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3/21>